

# 2013 부산 대학연극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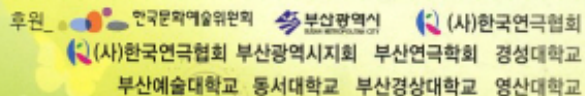
Busan University Theatre Festival

2013년 6월 17일(월) ~ 6월 27일(목)  
예노 소극장 (경성대학교 내)  
평일 pm 7:30 / 주말 pm 4:00

경성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영산대학교

주최\_ 부산 연극관련학과 교수협의회

주관\_ 2013부산대학연극축전 집행위원회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부산연극학회 경성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영산대학교

문의\_ 010-7400-6199 (사무국장)

\* 본 공연은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의 2013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 2013 부산 대학연극축전

2013 Busan University Theatre Festival

## 2013 부산대학연극축전 공연일정

예노 소극장 (경성대학교 내)

평일 pm 7:30 / 주말 pm 4:00

일시	학교명	작품명	작가	연출	지도교수
6/17(월)	경성대학교	파티	윤영선	송근욱	이기호
6/21(금)	부산예술대학교	서문짜리 오페라	B. 브레히트	김대현	손병태
6/23(일)	동서대학교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쓰쓰미 야스유키	김윤용	조기왕
6/25(화)	부산경상대학교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김정숙	박현도	이재성
6/27(목)	영산대학교	지하철 1호선	Volker Ludwig	박슬기	이연기

## 2013 부산 대학연극축전 STAFF

집행위원장 손병태

사무국장 김동민

사무보조 김수철, 손상훈

학생기획단 김대현, 김윤용, 박슬기, 박현도, 송근욱

학생평가단 송승이, 유지수, 한지인, 강수린, 하현수, 한혜민,

김윤용, 안성근, 정아영, 김현주, 이병훈, 윤재근,

김민정, 박슬기, 정유승

## 인사말



집행위원장  
손병태

올해도 어김없이 2013부산대학연극축전이 연극학도들의 열정과 패기로 대중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젊은 예술인들의 열기 넘치는 기운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파티, 서문짜리 오페라, 연기가 눈에 사무칠 때,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지하철 1호선 등 다양한 공연들을 젊은 감각, 새로운 시도 창조적인 해석으로 경상대학교 예노소극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젊은 연극학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후배 연극학도들의 끝없이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장차 한국연극의 미래가 밝다는 예감이 들어 선배연극인으로서 뿌듯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 연극학과들이 모여 자신들만의 결과물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 참여하는 연극학도들에게 자기발전과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간의 수많은 고뇌와 시행착오로 이루어낸 노력의 산물을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에게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내어 일말의 후회가 남지 않는 2013 대학연극축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항상 대학연극축전을 위해 뒤에서 힘이 되어주신 부산 연극관련 학과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한 작품을 위해 몇 달간을 밤잠 설치하며 무대 위에서 더 나은 모습을 만들어준 한국연극의 주역이 될 연극학과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연극학과 학생들의 의지와 열정을 보려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학생들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충고와 질타를, 학생들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찬사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연극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대학연극축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과장 인사말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장  
이성섭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 4학년 학생들이 윤영선의 「파티」를 가지고 부산연극축전에 참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파티는 외판 촌마을에 정착한 교양 있는 교수부와 무지한 촌사람들 사이의 불편한 만남이 들어내는 그로테스크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삶의 앙상에 관하여 지문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연극은 친근한 것과 낯선 것 사이의 역설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학생들은 아마도 이 작품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중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 여겨집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공연될 것입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고단했던 연습을 열정으로 극복하며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남다른 애정을 쏟으며 학생들을 지도해주신 지도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공연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시는 관객여러분께 다시 한 번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지도교수 인사말



지도교수  
이기호

2013학년도 졸업 작품으로 공연될 윤영선의(파티)는 현대사회의 온갖 병폐의 씨앗인 억압받는 욕망의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은 현대사회의 사회적 가면들 속에서 억압받는 순수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냄으로써 상처입은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연극이다.

도시를 떠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온 도시인들을 환영하기 위해 벌어지는 시골 사람들의 느닷없는 '화해의 길트기' 파티! 부지불식간에 벌어지는 파티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사회적 가면과 내적 욕망이 서로 부딪치고 깨지면서 파열음을 내기 시작하고, 그 틈새로 억압받은 욕망이 빠져나오며 배설되기 시작한다. 거침없이 배설되는 욕망에 당혹스러우면서도 연민과 함께 은근히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연극의 매력이다. 관객으로 하여금 연극 안에서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직관하게 만드는 무척정 파티가 시작된다.

두 달이 넘도록 몸살을 앓고서야 비로소 막은 올라가고, 다양한 사람들이 초대되고, 우리는 파티를 즐기려고 합니다. 매 공연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들을 나누고, 새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연극의 매력이 이런 것이 아닌 가 생각해봅니다.

2013학년도 1학기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연극전공 졸업공연으로 윤영선의 《파티》가 마련되었습니다. 《파티》 공연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윤성호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작품의 공연을 위해 도움주신 학과 교수님들, 문화기획단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공연을 보러 귀한 걸음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연출의글



연출  
송근욱(08)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은 것을 하려는 욕심은 없다. 다만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말하려고 했다.

나는 늘 소통의 부재를 다룬 연극에 관심이 많았다. 파티도 크게 도시사람과 시골사람 사이의 소통의 부재와 그들의 문화의 차이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시골 사람들은 도시에서 온 김가형 가족의 집을 무자비하게 점령해 나간다. 그들의 개인적 캐릭터와 극적 재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시골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자신의 영역을 빼앗기는 도시사람들의 모습에 집중해서 작품을 표현했다.

그리기 위해서 배우의 분석과 표현을 존중하고자 하였고 스태프들 사이의 소통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기위해 노력했으며 좋은 작업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김가형의 마지막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 연극으로 당장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다만 보여 줄뿐

### 작품줄거리

도시에서 살다 전원생활을 꿈꾸며 농촌 마을로 이사 온 김가형 부부네 가족에게 밤 10시가 지나 동장이라는 사람이 마을 사람들과 축하 파티를 해주겠다고 전화가 걸려온다. 이어 막무가내로 들어닥친 동장과 동네사람들은 집주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화해의 길트기'란 환영식을 치르고 자기들이 준비해 온 술과 안주로 파티를 즐긴다. 자신들의 이야기에 열을 올리던 그들은 점점 서로 충돌하고 부딪치는데...

CAST



김가형  
김종인



이주희  
행지인



김하연  
문선영



박명준  
김민규



정달수  
장세원



최순연  
이은주



박봉길  
이형원



이정애  
한지인



홍서연  
유지수

STAFF



연승  
송근욱



기획  
송승이



무대감독  
김재형



조명  
이소정



무대제작  
강준우



포스터, 팸플릿 디자인  
이나현



협찬  
서희정



무대디자인  
변혜란



무대디자인  
김다형



조명  
김현정



의상  
배하은



소품  
김규린

학과장 인사말



학 과 장  
손 병 태

이번 2학년 워크샵 작품 B.브레히트 작 <서문짜리 오페라>는 브레히트의 대표 서사극 중 하나로 현대의 문제점을 하층민들에게 비유해서 나오는 에피소드를 그린 서사극입니다. 2학년들이 소화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생각하지만 한 여름 땀방울에서 허리를 숙여 김을 매는 농부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에서 결실을 볼 수 있듯이 연습실과 소극장에서 학생들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을 보며 무대위에 결실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지도교수 인사말



지도교수  
손 병 태

6월 푸르름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2학년들은 반 학기 동안의 학과 과정을 마치고 신입생의 티를 벗지마자 어느새 졸업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샵 발표회는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자 성숙된 졸업학년으로써의 더 없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한 학기 내내 실수와 좌절의 여러 힘든 상황속에서도 작품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사람으로 이들을 지도하며 이끌어 주시는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멋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연출의글



연출  
김대현

이번 '서퐁짜리 오페라'를 통해 관객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계층에 관계없는 인간의 탐욕'이다. 인간은 누구나 욕구, 욕심이란 것이 있는데 어떤 일정의 양, 분수를 넘어 더 많은 것을 탐하는 것이 '탐욕'이다. 끝없는 욕심을 각 분야의 최고 위치의 인물들이 잘 보여준다. 경찰청장, 거지 두목, 강도 두목.. 이런 모습들을 보고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려하고 빼앗으려 하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작품줄거리

소호 거지들은 행인에게 구걸하고 청년들은 유혹하고 강도들은 강도 짓 한다. 런던 14개 구역의 최고의 거지왕 피침회사에 밀치가 구걸 허가증을 받기위해 찾아온다. 피침과 피침부인은 딸 폴리가 맥과 만나는 사실을 알게된다. 폴리는 허름한 마구간에서 맥과 결혼식을 올린다. 연회중에 김복 목사가 오고 잠시 뒤 브라운 경찰청장이 온다. 맥과 브라운은 노래로 우정을 과시한다. 폴리가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된 피침 부부는 계락을 세워 맥을 교수형 시키려 한다. 폴리는 이 사실을 알고 맥에게 도망치라 하지만 사탕가로 간 맥은 피침부인과 제니의 계락으로 경찰에게 잡혀 감옥으로 간다. 루시와 폴리는 맥을 두고 싸운다. 루시의 도움으로 맥은 도망치고 브라운은 안심한다. 피침이 와서 브라운을 협박하자 브라운은 거지 일당을 잡으려 하지만 결국 피침의 계락에 넘어가 맥을 교수형 시키기를 결심한다. 스미스 경관과 흥청에 실패한 맥은 결국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데..

CAST



대키스 정종훈 피침부인 성지원 피침 우지현 폴리 최혜연 브라운 양귀민 루시 김채윤 매시어스 박준연



제니 최진숙 스미스 양경문 폴리 김민지 밀치 강승환 베티 황여진 재이름 김재광 백선 김보규



헨티 한만승 청년 김민채 예드 손태민 김복목사 최원준 재이 강현구 거리 발리드 가수 심재호

STAFF



연출 김대현 조연출 이도현 무대감독 박기수 기획 김지이 조연 박병욱 조명 송현중 음향 권다혜



음향 김종민 무대제작 조효현 무대 디자인 김부성 소품 김종현 의상 엄태현 MR 박철홍

학과장 인사말



학과장  
이용관

이제 시작이다.

한 학기동안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의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성향과 견해로 인해 충돌하는 일이 다반사였을 것 입니다. 더구나 많은 관객들 앞에서의 공연이 처음인 만큼 부담도 크고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 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야말로 여러분을 보다 나은 연기자로 성장시킬 지양분입니다. 그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성장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무대에 올릴 스미 야스유키의 <연기가 눈에 사무칠 때>는 가족과 삶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두 남자가 그들의 가족과 소통을 하게 되면서 여러 헤프닝이 벌어지는데 그 일련의 에피소드들이 두 남자로 하여금 지난 생을 반추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의 무대가 많은 관객에게 삶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 공감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가나간 연기자의 여정에서 이번 공연은 단지 시작일 뿐이지만, 이 작은 하나는 여러분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작품의 완성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여러분과, 교수님들께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멋진 무대를 기대합니다.

지도교수 인사말



지도교수  
조기왕

우리는 살아가는 때 순간마다 '선택'이라는 기로에 놓입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부터 인생의 운명이 걸린 선택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많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때론 이 '선택'이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신중하지 못했던 선택 때문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매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미 스스로의 선택이 일어난 결과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다만 또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더 신중해지고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의 도움 없이 각자의 선택으로 다 함께 이 공연을 만들어 나가는, 스스로 배움의 길을 찾아 나선 당신들의 선택이 자랑스럽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빛내기 위해 밤낮없이 연습하고 대화하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이 공연이 끝난 후 더 성장하고 더욱 단단해져있을 여러분의 모습이 떠올라 행복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연출의글



연출  
김윤용

안녕하세요 이번 연출을 맡게 된 김윤용입니다.

'연기가 눈에 사무칠 때'를 준비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작품을 선정하는 작업에서 이 작품을 만나게 됐을 때 고인의 등장에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고인과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고인들이 관객에서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화장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슬프고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처음하는 워크샵이기에 오랜 시간 놓지 않고 역할을 가져가기 위해서 각자의 배역을 탄탄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참 즐거웠는데 배우들도 즐거웠길 바랍니다.

무대 또한 시대와 장소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암시를 주기 위해 수정사실주의로 표현했고 이런 방식이 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 왔을거라 생각합니다.

첫 워크샵을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조기왕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울고 웃고, 과정 중에 오해도 많았지만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함께 하는 마음으로 서로 도닥거리는 모습이 정말 훈훈했습니다. 여러분들 멋진 3class입니다! 앞으로 3번의 워크샵이 남았습니다. 기대해주세요요!

유쾌한 웃음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신이 지내온 인생과 죽음에 대하여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기가 눈에 사무칠 때 파이팅! 3class 화이팅!

작품줄거리

벗꽃이 만발한 어느 봄날의 화장터에 흰 수의를 입은 두 남자가 꽃잎이 부서지는 바깥세상의 풍경을 허무없이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급작스런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김진우와 기명식이다. 자신들의 육신이 태워지기를 기다리며 못내 아쉬운 듯 이승에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눈다. 이것 또한 인연이 되어 아득하고 긴 여행이 될지도 모르는 저승길의 길동무가 되기로 한다. 한편, 김진우와 기명식의 유족들은 고인의 권이 가마속으로 들어가자 슬픔에 잠긴다. 잠시 후 김진우의 유족들은 문상객들을 챙기느라 분주하지만 기명식 쪽은 문상객들이 없어 조용하다. 이때, 불에 그을린 수의를 입은 두 고인이 대기실로 와 서로의 가족을 소개하며 주위를 맴돈다. 뜻밖에도 치머를 입고 있는 김진우의 어머니를 만나고 죽은 사람을 볼 수도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머니를 통해 김진우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을 하고 고마움을 전하고, 기명식은 자신의 말과의 오해를 풀고 용서와 화해를 하고, 나이 어린 연인 과도 마지막 이야기를 나눈다. 이제 두 사람은 재가 되어 사라지고 대합실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CAST



김진우 (08) | 박정미 (11) | 김경훈 (10) | 김경희 (11) | 할머니 김민주 (11) | 김진숙 (11) | 이도일 (08) | 이준석 (08) | 정아영 (11) | 국민용 (10) | 장유빈 (11) | 김민주 (11) | 이인희 (11) | 김경민 (08) | 기명식 (09) | 기선지 (11) | 강미희 (11) | 고상수 (07) | 최근배 (10) | 남자 안준모 (09) | 권명은 (11) | 노현수 (11) | 안성근 (07) | 황일호 (10) | 백지현 (09)

STAFF



연출 김윤용 (11) | 조연출 박정혁 (11) | 조연출 천서경 (13) | 무감 안성근 (07) | 조명OP 이홍익 (12) | 음향OP 전상호 (13) | 기획 정아영 (11) | 무대 최현호 (08) | 조연 이준석 (08) | 음향 권명은 (11) | 의상 임서영 (11) | 분장 강민정 (11) | 소품 강귀은 (11) | 무대디자인 안준모 (09)

학과장 인사말



학과장 김재우

늦은 시각까지 예술관의 불이 켜져있는 모습을 보자면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학생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듭니다. 12학년 들이 단합하여 서로 부족한 점들을 채워가며 이번 작품을 만드는 데 모든 공을 들여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대견스럽고, 개별 장의 입장으로써 힘을 낼 수 있게 하게 해주어서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부산 연극축전에 출품하는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을 준비하며 배우의 꿈을 키워나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무대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예술창조의 의미를 깨달고 니아가 학생개개인에게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의 주제와 같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학생들도 가졌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도교수 인사말



지도교수 이재성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이라는 작품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인물속에 담긴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자본주의의 문제점, 그 안에서 살아 내려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에 의한 거짓된 말들 그리고 또 다른 거짓에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과 갈등들은 특수성을 띄고 있어보이지만 공통적인 이야기는 '자본주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동과 말 하나하나를 무대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접근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안에 고스란히 옮겨 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 연출의글



연출  
송범학

작가가 제시한 각각의 인물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고,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본주의의 부작용속에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하려고 배우,행동 하나 하나를 가볍게 보지 않고 정확히 옮겨내려 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물질 만능주의와 편의주의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묵묵히 옛것을 지켜나가고 자본주의의 세상에서 탈피한 모습을 보여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 작품줄거리

아버지의 대를 이어 2대째 세탁소를 꾸리는 강태국(세탁소주인)에게 어느 특별한 하루가 다가온다

어머니의 옷을 빼돌려 돈이 필요해 전당포대신 옷을 맡겼다 다시 찾으러 온 이석운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가난하지만 꿈을 꾸는 배우 진영민에게도 흔쾌히 옷을 빌려준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엄마의 심부름을 온 소녀가 세탁비를 잃어 버려서 무료로 옷을 찾아주고 맛있는것 까지 사먹으려고 돈을 주지만 이동추행으로 오해되어 호되게 당한다

그리고 부인 장민숙은 아들 강대영의 어학연수이야기로 문제를 일으키고 갑자기 찾아온 본격없는 손님들이 다짜고짜 어머니의 유산을 찾으려 세탁소를 발각 뒤집어 놓는다.

돈에 눈이 먼 손님들과 가족 모두가 인간세탁 마음세탁이 필요함을 느낀 강태국, 막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 CAST



강태국  
이태욱



강해국  
박현도



김민숙  
이해진



김민숙  
박경환



강대영  
김동준



김소미  
김영광



이석운  
송범학



이석운  
이동규



진영민  
김두한



나양미  
김현주



나양미  
이주희



박주우  
김난희



김소미  
김나영



김소미  
이가현



이우식  
이동준



이우식  
황준수



이민숙  
유가영



진영민  
정민희



이석운  
조은영

### STAFF



무대감독  
윤준환



음향  
정현우



조명  
이병훈



진행  
정문철



진행  
윤재근



학과장 인사말



학과장  
손기룡

2013년 부산대학연극축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해마다 부산지역의 연극전공학생들이 모여 열정적으로 만든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장을 펼쳐주시고 본 축제를 위해 뒤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산대학교 연기뮤지컬학과는 2013년 1학기 정기공연으로 김민기 번안 작품인 뮤지컬 <지하철1호선>과 닐 사이먼 작 <사랑을 주세요>를 무대에 올립니다. 뮤지컬<지하철1호선>은 2013 Hart Dream Festival과 부산대학연극축전에 참가하고 닐 사이먼 작 <사랑을 주세요>는 졸업공연으로 학교공연을 마치고 2013년 젊은 연극제에 참가를 합니다.

부산대학연극축전을 통해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만든 공연으로 서로의 만남 속에서 더욱 더 우정이 돈독해지길 기원 드립니다.

지도교수 인사말



지도교수  
이연기

독일 그립스(Grips)극단에서 태어난 지하철 1호선은 김민기 번안, 연출로 1994년 5월 한국 초연 후 18년이 넘도록 4000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70만여 명이 관람한, 한국 뮤지컬의 대표작입니다.

연번채너 '선녀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서울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실직 가정, 가솔 소녀, 잡상인, 사이버 전도사 등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20세기 말 한국사회의 모습을 풍자와 해학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 녹아 있는 자화상이 20세기 말의 한국 자화상만 으roman 보일까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지역에 살고 있는 기형 중에서도 매우 큰 기형의 형태를 간직한 대한민국 서울!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은 서울로 서울로를 외치며 오로지 서울이 이세상의 끝 인양 쫓아가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자식처럼 끌어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서울 사람들의 오해는 무엇일까요? 부동신감이 미친 가격대를 형성 하고 있는 한국 서울의 모습은 20세기 말에 비해 21세기 살고 있는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고 또 고쳐졌을까요?

이번에 선보일 우리 '영산대학교 연기뮤지컬 학과'에서는 '지하철 1호선'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되짚어 보고 대학 뮤지컬의 참신함과 재치를 가지고 상아탑의 정신으로 이기형적인 사태를 예쁘게 고발 하고자 합니다.

"서울 하늘 아래 단 한곳 운동 사랑이 남쪽뿐인 이상한 도시" 라고 시작 되는 안경이란 남자 주인공의 노래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 놓는데 정면마다 각 캐릭터를 특유의 맛깔스런 노랫말과 화성들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또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1막 끝에 나오는 아카펠라의 화음과 리듬은 여느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언더그라운드 느낌의 흥분을 충분히 발산하는 Rock의 리듬, 그 리듬의 화오리 속에 빨려 들어가는 감동을 즐겨보길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제작에 몰심임으로 도와주시고 응원 해 주신 김용호 학생님과 손기룡 학과장님 현숙희 교수님과 김재권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무엇보다도 추운 겨울부터 불철주야 최종우를 하며 아름다운 힘을 올려준 연출 박승기님과 조연출 겸 배우를 한 장유준군, 그 외 모든 배우여러분들과 조연, 음향, 분장, 소품 등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출의글



연출  
박승기

지하철 1호선은 독일원작 볼커 루드비히(Volker Ludwig) Line1이며, 연출가 김민기가 1997년을 배경으로 각색을 하며 대도시의 분주함, 익명성, 무관심 등 원작의 기본 틀을 이용하면서도 한국적 인물과 사회현상을 대입시켜 배를달과는 다른 1990년대 서울의 다양한 풍속도를 잘 그려냈다.

이 작품속엔 소외계층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한다. 그들은 우리 시대의 어두운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나가고 있지만 그 속엔 목청 찢어지는 애환이 숨겨져 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외와 무관심의 고차, 서로 같은 처지면서도 서로를 몰라 볼줄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며 교훈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으로써 관객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각자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다.

작품줄거리

백두산에서 못사랑을 나는 한국남자 제비가 건네준 주소와 사진만을 의지해 곧 그를 만날 수 있으리란 희망에 부풀어 이른 아침 연번에서 서울로 상경한 연번 채너 선녀.

하지만 서울역 지하도에서 걸인 문디와 땅쇠 그리고 어디선가 본 듯한 별강바지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그녀의 기대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다. 청량리행 지하철 1호선에서 만난 서울사람들은 일상에 쫓겨 무표정하고 냉담하기만 하고, 이해되지 않는 요란한 광고에 서울의 모습은 온통 낯설기만 하다. 게다가 유명한 무용수라며 제비가 건네준 주소의 청량리 588은 그의 번드르르한 설명과는 달리 독립군로가 아니라 사창가였다. 그곳에서 선녀는 열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운동권 출신 안경, 그를 시모하는 청녀 걸레, 혼혈아로 철수, 그리고 몇몇 청녀들을 만난다. 임신을 한 그녀를 몰살히 여긴 철수는 제비를 찾아줄테니 서울역 공보해매의 모장마차에서 기다리라고 한다.

서울역 모장마차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선녀는 서울 보통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 - 사이버 교주, 자해 공갈범, 잡상인, 가솔소녀 등을 만난다. 서울역 모장마차에서 별강바지를 다시 만난 선녀는 그녀가 제비와 함께 연번에 올랐던 그의 이모였음을 깨닫고 애인 제비의 행방을 묻지만 그의 실체를 알고 질망한다. 걸레는 이런 선녀에게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며 그녀를 위로해 주고 안경을 찾아 지하철에서 내린다.

그리고 얼마 후 급정거한 열차 안으로 누군가의 사고소식이 들려오는데.

# 영산대학교 | 지아철 1호선

## CAST



선니 하선이 (12) | 안경 김욱규 (07) | 갈래 김민정 (09) | 공보알매 김명희 (10) | 철수 천상희 (09) | 재미 정유승 (08) | 빨간바지 김민지 (12)



모인테 김병경 (09) | 문디 전광후 (12) | 청소부 이미소 (12) | 명희 김준영 (13) | 짜짜 이휴성 (12) | 찰나 김은비 (13) | 찰나 마차다 어유미 (13)

## STAFF



연출 박솔기 (09) | 조연출 정유승 (08) | 기획 김민지 (12) | 무대감독 이안호 (04) | 무대팀 김대성 (13) | 조명감독 이창준 (12) | 조명 박종진 (13)



조명 김민환 (13) | 음향 전유경 (13) | 판마이크 김혜나 (13) | 판마이크 이승진 (13) | 소품 정예지 (13) | 영상 이은솔 (13)

## 부산 대학연극축전 연혁

활동 연도	내 용			비 고
	행 사 명	행사장소	참여인원	
2002	제1회 대학연극제	코드소극장	60	• 주최 / 부산연극협회 • 집행 참여 / 교수협의회
2003	제2회 부산대학연극제	동서대학교 학생문화관소극장	180	• 주최 / 부산연극협회 • 집행 참여 / 교수협의회
2004	2004부산 대학연극축전	동서대학교 소향실합극장	140	• 주최 / 부산연극협회 • 주관 / 교수협의회
2005	2005부산 대학연극축전	부산예술대학교 원곡예술관 및 소극장	144	• 주최 / 부산연극관련학과 교수협의회 • 공동주관 / 대학연극축전 집행위원회, 부산예술대학교
2006	2006부산 대학연극축전	울속도문화회관 대/소공연장	116	• 주최 / 부산연극관련학과 교수협의회, 울속도문화회관 • 주관 / 대학연극축전 집행위원회
2007	2007부산 대학연극축전	경성대콘서트홀 예노소극장 부산예술대 원곡예술관	170	• 주최 / 부산연극관련학과교수협의회 • 주관 / 부산 대학연극축전 집행위원회 • 협찬 / 경성대 문화기획부
2008	2008부산 대학연극축전	너른소극장, 예노소극장 소향아트홀, 원곡소극장 영산아트홀	300	• 주최 / 부산연극관련학과교수협의회 • 주관 / 부산 대학연극축전 집행위원회
2009	2009부산 대학연극축전	공간소극장 엑터스소극장 경성대콘서트홀	190	• 주최 / 부산연극관련학과교수협의회 • 주관 / 부산 대학연극축전 집행위원회
2010	2010부산 대학연극축전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200	• 주최 / 부산연극관련학과교수협의회 • 주관 / 부산 대학연극축전 집행위원회,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2011	2011부산 대학연극축전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공연장	250	• 주최 / 부산연극관련학과교수협의회 • 주관 / 부산 대학연극축전 집행위원회
2012	2012부산 대학연극축전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공연장	250	• 주최 / 부산연극관련학과교수협의회 • 주관 / 부산 대학연극축전 집행위원회